

# 포스코홀딩스-한전 “수소경제 인프라 초석 다진다”



## NH협은행, 영농철 농가 찾아 일손돕기 구슬땀

NH협은행은 김준안 부행장 등 농업·녹색금융 및 공공금융부서 임직원들이 자매결연마을인 강원도 홍천군 모곡리 마을을 찾아 영농철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농업·녹색금융 및 공공금융부서 임직원들은 모곡리 마을 밭농가에서 파종 작업을 하고, 마을 환경정비 작업을 하는 등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농협은행



## SK에코플랜트-동서발전, 해외 태양광 사업 맞손

SK에코플랜트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사옥에서 동서발전과 '해외 그린수소 연계 태양광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오른쪽)과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이 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SK에코플랜트



## SK슈가글라이더즈, 광명시민과 '산해진미 플로깅'

SK루브리컨츠 여자 핸드볼 구단 SK슈가글라이더즈가 지난달 30일 연고지인 광명시 안양천에서 '광명시민과 SK슈가글라이더즈가 함께하는 안양천 환경정화 산해진미 플로깅'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200명이 참석해 산해진미 플로깅과 안양천 하천 정화활동을 병행 진행했다. /SK슈가글라이더즈



## 쌍방울 '대한민국 명가 명품' 내의부문 대상 수상

쌍방울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기념식에서 명가명품브랜드부문(내의) 대상을 수상했다. 쌍방울은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전통을 이어가는 기업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문정을 쌍방울 이사(오른쪽)가 수상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쌍방울

## 사업 협력 파트너십 구축 MOU 해외 블루·그린수소 생산도 검토

포스코홀딩스와 한국전력공사가 수소 사업에 협력하고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포스코홀딩스는 한전과 지난달 29일 '수소·암모니아 사업협력 파트너십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국내외 그린·블루수소 생산 프로젝트 공동개발 및 투자 ▲수소·암모니아 공급 유연성 확보를 위한 물량교환(SWAP) ▲수소·암모니아 혼소(혼합연소) 발전 및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 등 3가지 분야에서 협력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국내 최대 수소 수요처인 양사는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국내외 수소·암모니아 사업을



최현근 한국전력 전략혁신본부장(왼쪽부터),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유병욱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팀장(부사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4월 29일 '수소·암모니아 사업협력 파트너십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동으로 수행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및 공동 투자 등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수소·암모니아 물량교환으로 외부 여건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업환경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수소·암모니아를 혼합 원료로 사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혼소 발전기술 개발과 CCUS 기술 고도화 등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향후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한전과 함께 오는 2027년 청정 수소·암모니아 도입을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등 해외 블루·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 공동개발 및 투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수소는 새로운 미래 소재로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철강'의 중요한 원재료가 될 뿐 아니라 '탄소제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청정에너지원"이라면서 "포스코그룹은 수소 사업을 또 하나의 핵심 사업 축으로 삼고 국내 최대 수소 공급자이자 수요처가 될 한전과 협력해 수소경제 인프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시멘트업계, 사회공헌에 지역 이해관계자 참여시킨다

##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 발대식 지역사회·주민 위한 사업에 활용

시멘트업계가 그동안 지속 추진해온 지역 사회 직접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에 지역 이해관계자를 적극 동참시킨다.

1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권성동·이철규 의원(국민의힘), 7개 시멘트회사 대표, 지역 사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멘트 생산공장이 위치한 동해, 삼척, 강릉, 영월, 제천, 단양 등 지자체와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생공헌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시멘트산업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 발대식을 가졌다.

시멘트업계는 지난해 2월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과 주요 7개 시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시멘트산업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 발대식을 가졌다. (왼쪽부터)아세아·한라시멘트 임경태 대표, 삼표 이종석 대표, 쌍용C&E 이현준 대표 겸 시멘트협회장, 이철규 의원, 권성동 의원, 유상범 의원, 산업부 박진규 1차관, 한국생산성본부 안완기 회장, 한일·한일현대시멘트 전근식 대표, 성신양회 김상규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멘트협회

멘트회사 대표들이 자발적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 지역사회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상호협력(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발대식에선 그동안 시멘트업계가 국회의원실, 지역기금관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의 끝에 마련한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주요계획과 중장기 비전'을 선포하고 지역국회의원, 시멘트업체 대표, 각 지역기금관리위원장들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

문도 함께 발표했다

시멘트협회 이현준 회장은 "향토 기업으로서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힘든 지역현안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발대식을 계기로 시멘트업계는 ESG경영체제 확립을 더욱 공고히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 발전적인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진정한 향토기업,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시멘트업계가 매년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상생기금은 지역국회의원, 시멘트업체 CEO로 구성된 중앙기금관리위원회와 지역사회공헌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운영을 담당할 지역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LGU+, 군인자녀 교육격차 해소 앞장

## 국방부 등과 '12주 챌린지' 자기주도 학습 가이드 제공

LG유플러스는 국방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군인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12주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하반기부

터 국방부와 함께 군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 서비스 'U+초등나라'와 영유아 교육 서비스 'U+아이들나라'를 비롯해 전용 스마트패드와 통신요금(2년)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2회차를 맞는 12주 챌린지는 지원 후 첫 12주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으로, 군자녀 500명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

학 중심의 온라인 수업과 자율학습, 교사의 1:1 피드백, 주차별 미션과 미션 수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12주 챌린지를 통해 뇌 구조가 빠르게 발달하는 미취학아동의 문해력 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LG유플러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해 학습습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취약점별 해결책과 학년별 코칭 포인트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도 자기주도 학습 가이드

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2차 챌린지에 참여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3차 챌린지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민 LG유플러스 ESG추진팀장은 "군인자녀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LG유플러스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군인들은 자녀 교육 걱정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군자녀들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 인사

◆한겨레신문사 ◇ 데스크(편집국 이슈부문) △사회부 사회데스크 이정국 △정치부 정치데스크 성연철 ◇ 데스크(편집국 정책기획부문) △경제산업부 경제데스크 안선희 △사회정책부 사회정책데스크 박현정 ◇ 팀장(편집국 디지털미디어부문) △디지털뉴스부 디지털뉴스팀장 석진희 △ 미디어기획부 미디어 기획팀장 채반석 △ 미디어기획부 테크영상팀장 전종필 ◇ 팀장(편집국 에디터부문) △

종합편집부 편집1팀장 주민주 △종합편집부 편집2팀장 이재만 △종합편집부 편집3팀장 박정민 △퍼블리싱부 CTS1팀장 고윤결 △퍼블리싱부 CTS2팀장 박해련 △퍼블리싱부 CTS3팀장 정광진 △ 퍼블리싱부 CTS4팀장 나성숙 ◇ 팀장(편집국 이슈부문) △문화부 책임성팀장 최원형 △ 사진부 사진뉴스팀장 김태형 △ 사회부 법조팀장 노현웅 △ 전국부 전국팀장 김경락 ◇ 팀장(편집국 정책기획부문) △ 경제산업부 경제팀장 한광덕 △ 스포츠 콘텐츠부 기후변화팀장 김규남 △ 한겨레21

부 취재1팀장 이완 △ 한겨레21부 취재2팀장 박기용 ◇ 팀장(디지털·영상국) △ 디지털기술부 디지털기획팀장 유상미 △ 영상뉴스부 영상뉴스팀장 김완 ◇ 독자서비스국 △ 기획위원 이동구 △ 독자기획부 공모전략데스크 김정엽

## 부음

▲ 정용희씨 별세, 김선진(플래티오) 대표

이사)씨 모친상, 이상은(서울대 명예교수), 고병희(한양대 명예교수) 장모상= 4월 3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호, 발인 5월 4일 천안공원묘원 ☎031-787-1500 ▲홍승국 씨 1일 별세, 흥원화(경북대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씨 부친상, 빈소=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01호(2일 정오부터 조문 가능), 발인=4일(수) 오전 10시, 장지=경북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053)950-2005-6 ▲김맹영(주한화 글로벌부문 대표)씨 부친상=

4월 29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02)2227-7500 ▲박구서(전 JW홀딩스 부회장) 하나로컨설팅 회장 모친상=1일 오전 5시, 중앙대학교병원 발인 5월 3일 오전 9시, (02)860-3500 ▲윤순애(향년 92세)씨 별세= 박구서 하나로 컨설팅 회장(전 JW홀딩스 부회장) 모친상, 5월 1일 오전 5시,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 실(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발인 5월 3일 오전 9시, 02-860-3501, 장지 천안추모공원·충남 예안선영